

공릉동 캠퍼스 1호관 301호실의 회상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김 효 철

학과장이셨던 임상전 교수님의 권유가 있었기에 1968년 늦은 봄 근무하던 산업체에서 사직하고 공릉동 캠퍼스로 돌아와 1호관 2층의 광탄성실험실에서 석사과정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다시 정리하고 자리잡았다. 당시 대학에서 독일정부 장학생으로 출국 예정인 조교들의 후임으로 조교 발령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학교 귀환을 권유하신 것이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구체적 사항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귀환한 것이었다.

학교에는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조선소에서 설계업무를 맡고 있던 선배들께서 실험실에 자리잡고 미국조선학회에서 출간한 기본조선학을 번역하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또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상륙용 주정을 설계하는 일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에게서는 학생실험실습지원과 실험실 관리업무가 주어졌으며 선박제도시간에 학생들과 교실에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학기가 끝나도록 조교 발령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으며 막연하게 학과에 새로운 조교자리가 마련되는 데 시간이 걸려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을 지나며 함께 작업하시던 선배들이 학교를 떠나셨는데 한 분은 전문대학에 자리 잡는 기회를 가지셨으며 다른 한 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시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여름방학이 지난 후에는 나는 홀로 남아 학과의 실질적인 조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새 학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도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었고 광탄성학 실험 그리고 고체역학 강의실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학생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 학교에 출근하여야 하였다. 학기 중간시험 기간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기다리던 조교 발령 수속을 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1968년 11월 1일에 비로소 유급조교로 발령받았다.

학교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나 발령수속을 하며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독일정부 장학생의 조교직을 유학기간 중에도 유지시키라는 독일정부의 외교적 협조요청으로 새로운 조교자리 확보 없이 조교 발령이 어려웠던 것이다. 많은 지망자가 있었는데 일부는 여름방학 중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남은 지망자들로도 경쟁이 심하여 학교에서는 조교 지망자들의 출근성적 순으로 최종 발령자를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 순위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공릉동 캠퍼스 1호관 현관 앞에 통근 버스가 정차하곤 하였는데 1호관 시계탑 아래 자리하였던 302호실에는 당시 교무행정을 총괄하던 최계근 교수의 연구실이 있었으며 최 교수는 통근차가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출근하시어 통근차에서 내리는 조교 지망 후보자들의 출근

사항을 아무도 모르게 수 개월간 점검하신 후 발령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하시었기에 지방자 중에서는 젊은 축에 들었던 나를 선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월 초 발령을 받은 후에는 광탄성 실험을 통하여 단이진 선체구조물이 인장하중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응력집중 현상을 조사하였으며 한 쪽 변에 부분적인 전단응력이 주어지는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상태를 Fourier 해석으로 조사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1970년 1월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으며 공과대학 조선공학과와 교수로서 길을 걷게 되었다.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최초로 배정받은 연구실이 1호관 301A호실이었다.

당시 큰 교실을 301A, 301B, 301C로 칸막이하여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웃하여 이혜경 교수, 이정환 교수, 최계근 교수 등의 연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이혜경 교수 연구실과는 쪽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면기를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이었다. 이 방에 자리잡은 이후 용접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에 발을 들여 놓고 강의 준비와 구제 박사제도에 따라 학위 청구논문을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방을 지키곤 하였다.

1973년 여름이었다고 기억하는데 학교 건물내부를 도장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교수실에는 가구와 도서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전지크기의 포장지가 배정되었다. 얼마 되지 않는 책을 보호하려 정성스레 덮어 놓고 도장공이 들어와 천정과 벽을 도장하기를 기다렸는데 옆방까지는 도장을 하였으나 내 방은 도장공이 들어오지 않고 공사가 끝이 났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교수실을 도장하는 계획에 전임강사는 법정교수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어서 도장계획이 있다 하여 기다렸으나 다음 번 도장 계획은 교실이었기에 또다시 도장공은 전임강사인 내 방을 찾아올 까닭이 없었다. 혹시나 하여 전지로 가려놓은 서가를 불편하게 이용하며 도장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나 도장공은 내 방을 찾지 않았고 다시금 도장 공사는 종료되었다. 1호관에 2사람의 전임강사가 있었는데 한 연구실은 차오로 도장이 되었고 유독 내 연구실을 도장할 때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음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3차 공사로 복도와 계단 그리고 화장실 등의 도장이 이루어졌다. 학기 중에 도장이 이루어졌기에 많은 부분이 일과 후에 이루어졌는데 일과 후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다 퇴근하곤 하였기에 도장공들이 도장작업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페인트에 섞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 항의하였으나 학교의 도장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을 적정량 넣어야만 작업성이 얻어진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도장 공사가 끝나 가고 있었기에 도장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지로 덮어 놓은 서가를 개방하고 정리하였다. 대학이라는 곳이 물 몇 바가지만 더 넣으면 한 사람의 전임강사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였다. 화장실보다 순위가 떨어지는 전임강사 실을 벗어나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조교수로 빨리 승진하여야 한다 생각하고 연구 활동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다시금 한 주쯤 지났을 때 방을 두드리는 방문객이 있었는데 도장 공사를 확인하는 감독관과 도장 책임자의 방문이었다. 규정에 따른 지시와 충실한 시공이었음에도 건물전체에서

유독 내 연구실만을 도장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종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 도장공이 찾아 왔으나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강력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도장공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도장 책임자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 도장에 응하였다.

그 해 겨울 조교수로 승진이 확정되었으며 1호관 2층에 학과 교수들과 가까이 방을 얻어 연구실을 이전하고 봄을 맞게 되었다. 공과대학 공릉동 캠퍼스에서 전임강사로 발령받았던 젊은 시절을 회상할 때면 비록 원칙에 벗어난 일일 수 있으나 관리자가 수성페인트에 물 한 바가지를 더 타도록 하였더라면 1호관 3층의 301A호실에서의 26개월의 생활이 40년이 지난 지금과 같은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